

경배와 찬양	임재 / 놀라우신 은혜 생명의 주님 / 오 나의 하나님은	다같이
기도		다같이
성경봉독	마 21:33~44	고현이
말씀	아들에게 위임된 권위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예수 예수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 기도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옵니다. 저희 입술을 열어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눈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집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며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정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응답 찬양

###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느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불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예수 그리스도

## 아들에게 위임된 권위 (마 21:33~44)

33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돌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우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34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35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36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37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38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39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40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에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 줄 것입니다.” 4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44.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가까운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시기가 가까워 올수록 유대인들과 첨예하게 갈등하셨습니다. 그 분은 마치 죽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같이 그들과 대립하셨습니다. 때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날이 서서, 마치 정치권에서 서로 싸우는 듯한 말들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 분은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겹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그 곳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을 쫓아 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승인해 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행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께서 다시 성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자, 그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들은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모르겠다.” 고 하자, 예수께서도 자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속해서 해 주시고, 오늘 본문은 그 중 두 번째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후회적 답변입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이 비유의 곳곳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말씀을 포함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 5:1-7)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과연 이 악한 소작인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렘 35:15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 자신의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잔혹하게 죽여왔습니다. 그 행동들이 악한 소작인들의 행동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35절) 예수님은 그들이 이 악한 소작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이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큰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 아들은 이 포도밭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38절) 아들은 이 주인의 전부였습니다. 주인은 이 포도밭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은 주인의 화해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만약, 아들마저 그들이 죽인다면 그들에게는 화해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갖고 계신 성품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벧후 3:9-10)

둘째, 아들의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처음 이 아들은 악한 소작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조금은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중 모습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42b, 44절)

이 말씀은 구약 시편 118:22-23과 이사야 8:14-15, 다니엘 2:44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마지막은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깨뜨리고 부숴 멸망시키는 공의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는 어마 어마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권위자고, 그들은 그 권위를 훔치려는 거짓 권위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들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아직 회개로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해 주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심판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지위를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에 대한 해석도 재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접받기 좋아하고, 이중적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해 권위자 행세를 해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탁받은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이 마음 간직하시는 겸손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 독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세상의 불의와 마주칠 때 예수님과 같이 맞서나요, 아니면 수긍하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2. 최근 예수님께 책망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책망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3.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 중, 이것만큼은 내가 소유한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나누어 보세요.

## 파송 찬양

### 민족의가슴마다 (그리스도의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주일 현장 예배 재개 안내

주일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장예배와 함께 실시간 ZOOM  
예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진  
예약 링크를 통해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환영회

10월 31일(주일) 예배 후에 청년부 전체가 함께 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저녁식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행정목사 부임

이강현 목사님께서 지난 10월 19일부터 저희 교회 행정목사님으로 사  
역을 시작하셨습니다.

#### QT 교제 11월호 생명의 삶구입 안내

11월호부터는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5월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체크, 벤모 모두 가능)

#### 청년부 기도 모임

금요일 7시에 청년부 예배실에서 in-person으로 청년부 기도모임이 있  
습니다. (매달 첫째주 금요일 제외)

#### 토요 무릎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3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2021 AKPC장학생 선발

지원대상 : 일반 대학/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 /대학원생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온라인), 성적증명서  
장학금 신청 사유

접수 마감 : 10/24(오늘)  
문의 : 장학위원회 (akpc.scholarship@gmail.com)



#### 찬양팀 모집

1st 피아노1명 (문의 : 김태동 형제, kim\_teadong@hotmail.com)

#### 겨자씨 간증 모음

우리 교회 매거진 겨자씨에 담을 청년들의 간증 등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 전해나 자매 (hannah950518@utexas.edu)

# PSALM

###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매월 첫주 제외)
정기 리더모임	매월 첫주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 am
토요 무릎 기도회	토 6:30 am

제 49권 19호  
**OCT 24**  
**2021**



#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광현	antoine7190@gmail.com
간사	이찬재	leechanjae@gmail.com

### 양육과정안내

####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 512 454 1727 / fax \_ 512 454 6888
- psalm@akpc.org
- www.akpc.org
-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